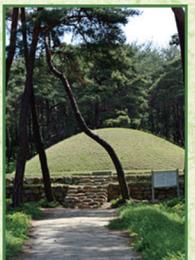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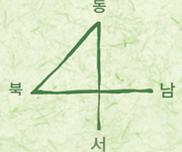


쉽게 찾아가는 삼릉 가는 길



경주시 탑동 855-5



경주시 탑동 637-4



창림사지 5.9km



망월사



삼릉골 답사

석불두

경애왕릉

삼릉 7.7km

주차장 · 버스정류장

포석로

서남산 주차장 8km



경주시 배동 725



경주시 배동 503-3



경주시 배동 527-1



경주시 탑동 692



경주시 교동 162-4

서라벌 대로

김호장군고택 2.2km

남간동네

남간사지
당간지주 4.9km

양산재 3.1km

나정 3.2km

나정 가는 길

천관사지 0.6km

오름 1.1km

오름



경주시 탑동 231-1

고속도로 IC



경주시 탑동 700-1



시내
교촌
월정교
출발

삼릉 가는 길 주요 코스 | 소요시간 4시간

- 월정교 ▶ 천관사지(0.6km) ▶ 오름(1.1km) ▶ 김호장군고택(2.2km) ▶ 교차로(2.9km) ▶ 양산재(3.1km) ▶ 나정(3.2km) ▶ 일성왕릉(4.3km) ▶ 남간사지당간지주(4.9km) ▶ 창림사지(5.9km) ▶ 포석정(6.5km) ▶ 지마왕릉(6.5km) ▶ 태진지(6.9km) ▶ 배동석조여래삼존입상(7.2km) ▶ 삼릉(7.7km) ▶ 경애왕릉(7.8km) ▶ 입곡 석불두(8.1km)

慶州南山研究所

www.kjnamsan.org E-mail: kjnamsan@hanmail.net 경북 경주시 태종로 711번길 15(노서동) Tel. 054-777-7142 Fax. 054-776-7142

삼릉 가는 길

① 월정교

월정교는 신라의 정궁인 월성의 남쪽을 감싸고 흐르는 문천 위에 놓여 있다. 삼국사기에 '경덕왕 19년(700년) 궁의 남쪽 문천위에 월정교와 춘양교를 세웠다'고 하였고, 월성에서 남산 방향으로 흐르는 문천에는 교대와 4개의 교각이 남아 있었다. 이 교대와 교각들을 기준으로 길이 63m, 폭 13.5m의 누각이 있는 다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렇게 복원했다. 원효대사가 요석공에 들어가기 전 건넌 다리느름나무 다리로 19m 아래에서 유적이 확인되었다. 밤이면 조명이 비춰져 물에 비친 다리가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② 천관사지

월정교 너머 너른 들판에 지금은 사람들이 눈을 일구고 살고 있다. 그 논 한가운데 있는 절터가 천관사지다. 천관사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는데 큰 공을 세웠던 김유신과 천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남아있는 절이다. 절터를 발굴하니 곳곳에 절터였음을 확인하는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어 한 때 융성했던 사찰이었음을 현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신라 38대 원성왕이 꿈에 천관사 우물속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왕위에 올랐다는 이야기도 삼국유사에 남아 있다. 절터에서 발견된 우물로 보아 삼국시대 말부터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전기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③ 오름

오름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거사간과 2대 남해차차웅, 3대 유리이사금, 5대 파사이사금, 알영부인이 묻혀있다고 전해진다. 능의 옆에는 시조를 모시는 송덕전과 알영부인이 태어난 알영정이 있다. 박혁거세거사간이 나라를 다스린지 60년이 되던 해 거사간은 승천하고, 7일 후 사지가 흩어져 떨어졌다. 나라 사람들이 합장하여 장사지내려 했으나 큰 뱀이 나타나서 방해로 함으로 각각 장사를 지냈다고 하여 오름이라고도 한다. 넓은 경내는 조용하며 나무 그늘이 있는 넓은 잔디밭이 있어서 가족과 한적한 시간을 보내거나 산책하기 좋다.

④ 김호장군 고택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김호장군(?~1592)의 고택이라고 가전되어 오는데 400년은 넘었을 것이다. 장군은 임진왜란때 공을 세워 부산 첨사에 제수되었으나 전사하여 임지에는 나가지 못하였다. 이 고택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민가 건물 중 하나로 옛 건축 수법과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안채, 왼쪽에 아랫채, 오른쪽 뒤편에 가요가 배치되어 있다. 원래 사랑채가 동쪽에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 구성은 단순하지만 대형 앞에 문 짝을 다는 것과 굴뚝을 부뚜막 한쪽에 설치한 것 등이 이채롭다. 17세기 전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의 터 또한 예사롭지 않다. 신라시대 절터였기 때문에 주변에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석조물이 있고 마당의 우물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지금도 후손이 살고 있다. 고즈넉한 분위기가 쉬어가기 좋다. 고백 체험도 할 수 있다.

⑤ 양산재

신라 육부총장들을 모시기 위하여 1970년에 세워져 춘추로 향사를 지내는 곳이다. 고즈넉한 분위기가 평안하다. 정문이 닫혀있으면 옆 관리지의 집 마당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⑥ 나정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거사간이 태어난 전설을 간직한 우물이 있던 자리라고만 알려져 왔다. 신라가 세워지기 전 경주 일대는 진한의 땅으로 육부총장들이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산기슭 우물가에서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가보니 빛이 나는 큰 알이 하나 있었고 알 속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자 하늘에서 보내준 아이라고 생각하여 잘 길러 13세가 되던 해 왕으로 추대해 나라를 세웠다. 원래 소나무 숲 가운데 조그마한 비각이 하나 있고 그 뒤편에서는 주춧돌로 보이는 네 개의 돌이 규칙적으로 사방에 둘러져 있었고 가운데는 우물을 덮은 것으로 알려진 넓은 판석이 놓여있었다. 이 비석은 조선 소조 3년(1803)에 세워졌다. 2002년 나정의 비각을 다시 지으려고 일대를 발굴하게 되면서 그동안 막연히 추정해온 나정의 신비로움이 실제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완전한 팔각형 기초를 갖춘 건물터(한 변 8m 내외, 지름 21m)와 그 주위를 둘러싼 4각의 담장 등의 유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연화문과 수막새, 암막새 등 특수기와도 출토되었다. 절각의 건물, 유적과 유물지 등이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제사터이자 신궁으로 신라에서 가장 중요시되던 공간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신화로만 여겨졌던 신라 건국 이야기가 실존의 역사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 터의 건물지를 기반으로 신궁을 복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금은 넓은 공터 일부에 몇천 소나무가 그림처럼 배경으로 남아있지만 상상만으로도 무한히 신비로운 곳이다.

⑦ 남간사지와 당간지주

나정과 남간사, 창림사 등이 있는 이 지역은 남산에서 사찰이 가장 많이 세워졌던 지역으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남간사는 가장 큰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간 마을 전역에 사찰의 흔적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나정에서 일성왕릉으로 향하는 길 중간에 포석정으로 길이 이어지고 그 너른 들판에 돌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바로 남간사 당간지주이다. 당간지주는 절에 행사가 있을 때 불보살의 위력을 표시하는 것발을 올리는 개양대인 당간의 양쪽을 지탱하는 돌기둥이다. 높이 3.6m로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져 안정감을 준다. 당간을 고정시키기 위해 깎아낸 'u' 자형 간구는 다른 곳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당간지주에서 바라보는 절터는 그 옛날 이 절이 얼마나 큰 절이었음을 실감나게 한다. 남간사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31대 신문왕과 32대 효소왕 때 활동한 해동 스님의 절이 이곳에 있었다고 하며 40대 애장왕과 41대 현덕왕 때 절이 있었다고 하며 8세기 즈음 절이 세워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남간 마을 안에는 남간사 옛 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돌우물이 남아있다. 석정은 땅을 파고 돌을 짜올린 후 그 위에 다시 돌로 틀을 얹은 모습이다. 우물 뚜껑돌 둘레에는 이중으로 테를 둘렀는데 윗 단은 높은 직각을 이루고 아랫단은 곡선으로 낮게 변화를 주었다.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다듬어져 시원스럽다. 통일신라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마을 곳곳에는 초석과 주춧돌들이 민간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⑧ 창림사지

창림사지 3층 석탑은 남산에 남아있는 석탑 중 가장 크다. 상륜부가 없어졌음에도 높이는 6.5m에 달한다. 상륜부 높이를 감안하면 약 9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살짝 올라온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풍광이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온다. 탑의 규모도 규모지만 가장 먼저 팔부중상이 새겨진 탑이기도 하다. 상층 기단에 새겨진 팔부중상은 아수라, 건달바, 천, 가루리만 남아있는데 창림사지 석탑을 필두로 팔부중상이 지방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탑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8세기 중엽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파괴되어 쓰러져 있던 것을 1976년에 없어진 부분을 추가하여 복원했다. 이 탑과는 별도로 아래 위치한 절터에서 팔부중상이 새겨진 탑(쌍탑으로 추정)이 발굴되었는데 이 탑은 855년 46대 문성왕이 발원하여 세운 탑으로 확인되었다. 석탑이 있는 창림사지는 그 유물과 유적이 발견된 범위에 미뤄 짐작컨대 꽤 규모가 큰 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석탑 외에도 양초맛을 정도로 귀여운 쌍귀부부가 남아있다. 곡선이 강조되어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해서 무열왕릉의 귀부와는 다른 신라 하대의 정서와 예술의 특징을 보여준다. 창림사지는 박혁거세와 일영 부인을 13세 때까지 모신 최초의 궁궐이 있던 자리로 알려져 있어 역사적인 의미가 큰 곳이기도 하다.

⑨ 포석정

포석정은 지금까지 신라 멸망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다. 신라 55대 경애왕 4년, 후백제 견훤의 군대가 고을부(영천)까지 닦쳤는데도 왕과 종척들은 포석정의 구불구불한 돌 홀 사이에 물을 흐르게 하고 그 위에 술잔을 띄워 연회를 베풀었다고 전해져 왔다. 사치와 향락으로 나라를 멸망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포석정은 군사적 성격 또는 국가 제례적인 성격의 공간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남산신성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1989년 발견된 화랑세기 필사본에서는 고신라시대부터 제례 의식을 행한 기록이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불구불한 곡수거의 구조는 63개의 다듬은 화강암을 조합하여 6m의 인공적인 물길을 조성한 것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술잔을 띄우면 대략 12곳 정도에서 술잔이 머문다고 하여 신라인들의 우수한 과학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부분 소나무가 울창한 남산에서 포석정은 활엽수가 많아 넓은 그늘을 주어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특히 가을이면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은 울창한 나무들에 둘러싸여 고즈넉한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⑩ 태진지

태진지는 삼릉가는 길에 있는 생태공원이다. 작은 연못을 중심으로 수생식물들이 가지런히 계절마다 제 멋을 뽐낸다. 진달래, 꽃창포, 왕원추리, 제비꽃, 남개연, 부레옥잠화, 세모고랭이, 구름 미나리 아재비 등을 볼 수 있다. 하늘과 산, 나무, 꽃들이 연못과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만드는 곳. 데크와 지붕있는 쉼터, 벤치가 곳곳에 있어 잠시 앉아 풍경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다.

⑪ 배동석조여래삼존입상

삼불사 옆에 있는 이 석불은 이 주변에 흩어져 묻혀 있던 것을 1923년에 모아서 세운 것이다. 본존불은 높이가 2.75m이며 좌우의 보살상은 높이 2.28m, 2.2m이다. 삼존이 모두 명량하고 천진스러운 아기들처럼 보인다. 수인은 시무외인(施無畏印: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약속)과 시어원인(施與願印: 원하는 바를 모두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좌협시보살상은 오른손은 설법인을 하고 왼손은 정병을 힘껏 움켜쥐고 있다. 두광은 장식 없이 머리에는 관대를 두르고 삼면두식(三面頭飾)으로 장식되었다. 목에는 세 개의 영락(瓔珞)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가슴에는 승기지가 비스듬하게 가려져 있다. 우협시보살상은 이중의 연화대 위에 서서 오른손은 영락을 잡고 왼손은 경책을 쥐고 있다. 몸은 삼굴자세를 하고 있으며, 어깨는 약간 움츠리고 있다. 둥근 두광의 테두리에는 두 줄의 선을 돌리고 5구의 화불과 두 송이의 보살화가 배치되어 있어 특이하다. 세 줄로 된 영락은 아래쪽에 큰 연꽃이 한 송이 달려 있고, 허리를 감은 군의(袿衣) 자락을 동여맨 끈이 화려하게 드리워져 있다. 본존불과 좌협시보살은 7세기 중엽, 우협시 보살은 7세기 후반에 조성된 고신라불상의 대표적이다.

⑫ 삼릉과 경애왕릉

삼릉계곡 입구에 있는 이 세 왕릉은 8대 아달라왕(154~184), 53대 신덕왕(912~917), 54대 경명왕(917~924) 등 3명의 박씨 왕의 무덤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무덤은 모두 원형으로 흙을 쌓아올린 봉토분이다. 가운데 신덕왕릉이라 전해오는 무덤은 1936년과 1963년에 도굴 당하여 내부를 조사한 결과 황혈석식실본 임을 확인했다. 특히 동서 내벽에 오방색이 칠해져 있어 이채롭다. 확실한 기록도 없고 초기 아달라왕과 나머지 왕의 연대차이가 800년이 넘어 왕릉의 진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릉과 어우러진 구불구불한 소나무 숲이 일품이다. 경애왕릉(924~927)은 삼릉과 이어진 소나무 숲 계곡 너머에 위치하고 있다. 55대 왕으로 재위 4년(927년)이 되는 해 후백제 견훤의 습격을 받아 최후를 마친 왕이다. 왕릉은 별다른 특징은 없으나 삼릉과 더불어 명목 소나무 숲과 어우러져 사계절 사랑받고 있다.

남산유적답사(무료안내)

- 날 짜 : 토 · 일 · 공휴일 - 09:30
여름방학중 매일 - 09:30
- 코 스 : ①삼릉골 ②동남산신성 ③삼릉가는 길
④동남산 ⑤사남산 ⑥남남산 ⑦달빛기행
- 신 청 : www.kjnamsan.org

모바일홈페이지



社團法人
慶州南山研究所
http://www.kjnamsan.org
문의전화 : 054. 777. 7142